

폭염 속 에어컨 사용, 화재 조심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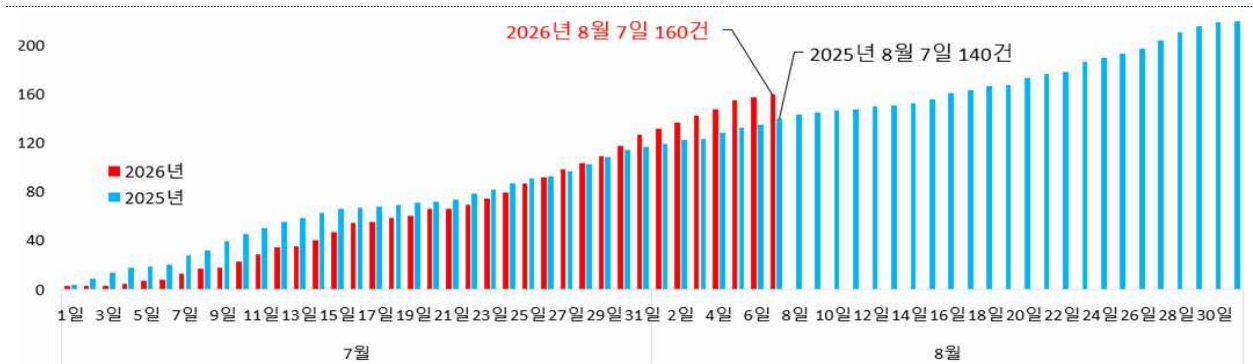
- 실외기 통풍 확보 및 주변 청소로 화재 위험 요인 사전 차단
- 시간설정 기능 활용한 주기적 에어컨 휴식으로 과열 사고 예방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연일 계속되는 폭염으로 에어컨 사용 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기기 과열 및 전기 불량 등으로 인한 화재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올해 7월 1일부터 8월 7일까지 발생한 에어컨 화재는 총 16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40건)보다 20건 증가했다. 특히 무더위가 기승을 부린 7월 말과 8월 초에 집중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 2026년 및 2025년 일자별(7.1.~8.7. 누적) 에어컨 화재 >

(단위: 건)



[출처: 국가화재정보시스템, 소방청]

원인별로는 전체 에어컨 화재의 대부분인 86%(138건)가 전기 접촉 불량 등의 ‘전기적 요인’이었고, 과열 등 ‘기계적 요인’이 4%(6건), ‘부주의’가 4%(6건) 순이다.

<2026.7.1.~8.7. 에어컨 화재 원인별 현황>

구 분	합 계	전기적	기계적	부주의	미상
화재(건)	160	138	6	6	10

최근 냉방기기 사용 증가와 함께 화재 사고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 8월 8일 부산 해운대구의 한 아파트 실외기에서 불이 나 주민 50여 명이 대피

하는 사고가 있으며, 지난 7월 8일에는 서울시 은평구 연립주택의 에어컨 주변(추정)에서 발생한 화재로 초등생 남매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또한, 지난해 여름에도 부산의 부산진구와 기장군의 아파트에서 멀티콘센트 전기 과부하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해 어린이 총 4명이 사망하는 등 에어컨 관련 화재가 인명피해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폭염 속 안전하게 에어컨을 사용하기 위해 다음 화재 예방 수칙을 반드시 준수해 줄 것을 강조했다.

먼저 에어컨과 실외기의 전선 피복이 벗겨지거나 훼손된 곳이 없는지 사전에 살펴야 한다. 에어컨은 전력 소모가 커 과열되기 쉬운 만큼, 멀티콘센트 무분별한 사용은 자제하고 제품 설명서 기준에 맞는 용량의 콘센트를 사용하는 것이 안전하다.

또한, 실외기 주변 청소와 통풍 관리도 필수적이다. 실외기에 쌓인 먼지는 과열 시 불이 붙는 원인이 될 수 있어, 주기적으로 먼지를 제거하고 주변 환경을 깨끗이 유지해야 한다.

실내에 설치된 실외기는 환기창을 충분히 열어두고, 외부에 설치된 실외기는 먼지와 습기 등에 취약하므로 정기적인 점검과 관리가 필요하다. 직사광선이 강하게 내리쬐는 곳에 설치된 실외기에는 통풍에 유의하며 차양막을 설치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아울러 평소와 다른 소음이나 진동, 타는 냄새 날 경우 즉시 작동을 중단하고 전문가의 점검을 받은 후 사용해야 한다. 장시간 연속 작동 시 기기가 과열될 위험이 있으므로 시간설정 기능을 활용해 주기적으로 쉬어주고, 밀폐된 공간일수록 틈틈이 환기해야 한다.

하종목 예방정책국장은 “당분간 폭염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에어컨을 사용할 때는 일정 시간마다 가동을 멈춰 기기를 충분히 식혀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라며, “특히 실외기 주변의 뜨거운 공기가 원활히 배출될 수 있도록 청소와 통풍 관리에 각별히 신경 쓰셔서, 올여름 마지막까지 화재 사고 없이 안전하고 시원하게 보내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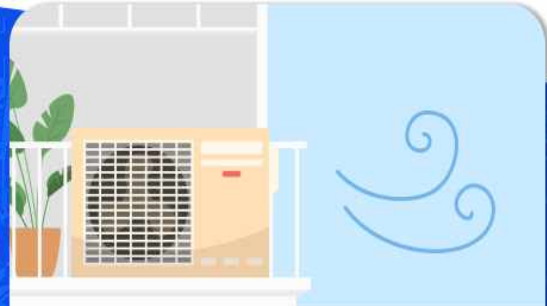
담당부서	안전예방정책실 예방안전제도과	책임자	과 장 이치선 (044-205-4510)
		담당자	사무관 송정호 (044-205-4505)



에어컨 화재예방 안전수칙



에어컨은 단독콘센트 사용하고
전선이 훼손된 곳 없는지 확인



실외기는 통풍이 잘 되는 곳에 설치하고
에어컨 가동 시 통풍 잘 되도록 관리



에어컨 내부에 먼지가 끼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청소



팬의 날개가 고장으로 작동하지 않거나
소음이 있으면 전문가에게 점검 의뢰